선거운동 풍경도 바꾼 신종 코로나 … 대면 중단 온라인 홍보

지역정가, 전통시장 방문 금지·선거사무소 개소식 등 연기
예비후보들, SNS·유튜브에 홍보 영상…"시민 안전" 한목소리

광주에서 첫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자 지역 정가도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면접촉을 무기한 중단키로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에서 신종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운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신종코로나 확산 우려에 지난달 31일 일주일 간 유권자와 대면 접촉을 중단하고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선거 대책위원회 발대식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연기했다. 하지만 이날 광주에서 신종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서 무기한 중단을 결정했다.

광주시당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거나 왕래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교부하거나 악수를 하는 등 직접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 그리고 재래시장과 상가 밀집지역 방문을 금지했다. 또 상가를 호별 방문하거나 산악회 동호회 행사 등에 참석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중단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지지자들이 방문하는 것도 가급적 지양토록 할 예정이다.

민주당 광주 총선 예비후보들은 이날 이후 피켓을 이용한 출퇴근 거리인사나 SNS 선거운동 등 시민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 방식의 선거운동 외에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한다. 이번 방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유지할 계획이다.

송갑석 시당위원장은 "이번 지침으로 21대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만큼 시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도 이날부터 대면 접촉 방식의 선거 운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의 방침에 따라 예비후보들은 전통시장, 행사장 등 많은 인원이 몰리는 곳에서의 선거 운동보다는 SNS·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대안신당 최경환 광주시당 위원장은 "유권자를 직접 접촉하는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온라인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보건당국이 총력을 기울여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들은 예방 수칙을 잘 지켜 상황을 이겨내는 데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비후보들도 동참을 선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최영호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실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만 남기고 자원봉사자들과 지지자들의 방문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민형배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자가 광산구 주민으로 확인됨에 따라 대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이남재(민주·서구을) 예비후보는 "강력한 방역 대책의 실행과 함께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용빈(민주·광산갑) 예비후보도 "현직 의사로서 모든 역량을 시민 건강과 안전에 올인하겠다"며 "모든 행정 기관과 의료 기관은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접촉자 등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선거운동 중단 조치가 제대로 지켜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민주당 경선 판세를 가를 공천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예비후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대다수 예비후보들은 온라인 홍보나 정책 선거에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지역구 단체 모임과 행사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종 코로나 대처 모두 힘 모읍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현역 단수지역도 경쟁력 평가

64명 공천 적합도 조사 … 광주 서구갑 대상 될 듯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국회의원이 4·15 총선 단독 공천을 신청한 지역도 적합도 조사를 하고 후보 경쟁력에 대해 절대 평가를 한다. 광주·전남에서는 송갑석 국회의원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서구갑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하위 20%로 평가된 현역 의원의 해당 지역구는 정밀 검증을 하고 있으며,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후보 경선에서 가산점을 최대치(20%)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애초 전략 지역으로 지정된 15곳을 제외한 238곳의 공모 지역구 가운데 복수의 후보자가 신청한 지역에 대해서만 공천 적합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적합도 조사가 공천관리위원회의 단수 공천 내지 후보 경선 등을 위한 평가 자료인 만큼 현역 의원이 단수 신청한 지역은 조사 필요성이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

하지만 후보 공모 결과 현역 의원 출마자 109명 가운데 경쟁자가 없는 단수 후보자가 59%(64명)를 차지하면서 대대적 물갈이가 물 건너갔다는 평가와 비판이 나오자 분위기가 반전됐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이들을 비공개하고, 최고위원회 요청으로 공관위가 공천 적합도 조사 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대통령 이름을 대표 직함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천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심사가 시작되는 9일 이전까지 현역 의원의 단수 공천 신청 지역에 대해서도 적합도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공관위는 현역 의원에 대한 경쟁력을 절대 평가할 계획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안철수 신당' 다음달 1일 창당

'안철수 신당'이 오는 3월 1일 닻을 올린다.

'안철수 신당' 창당추진기획단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오는 9일 발기인 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고 김철근 창당추진기획단 공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앙당 창당은 오는 3월 1일이 목표다.

발기인 대회 이후 창당준비위원회를 출범해 약 3주에 걸쳐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세종·광주 등 7개 시·도당을 창당할 계획이다.

신당의 명칭은 일단 현재의 '안철수 신당'을 유지하기로 했다. 4·15 총선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은 전례가 없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이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창당추진기획단은 이날 1차 실무 인선도 단행했다. 부단장에는 장환진 전 국민의당 기조위원장을 임명하고 향후 공동부단장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기획1실장에 김윤 북촌학당 학장, 기획2실장에 이현웅 변호사를 각각 선임했고 정책 1·2·3실장은 김경순 전 정책네트워크 내일 수석연구원, 김현배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 장환진 부단장(겸임)이 맡는다. 공보실장은 김철근 전 국민의당 대변인이, 네트워크실장은 김용성 전 국민대 행정대 외래교수가, 홍보1실장은 양창호 전 청와대 행정관이, 홍보2실장은 송영진 ㈜아티초크 대표가 맡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교섭단체 무너진 바른미래 … 공중분해 위기

손학규 대표 최측근 이찬열 탈당…당직자들 퇴진 요구 당무 거부
의원 6명 "10일까지 퇴진 안하면 탈당"…비례대표 의원들 제명 요구

이찬열 의원이 4일 탈당함에 따라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게 됐다. 여기에 당권파 의원들마저 손 대표의 퇴진을 압박하며 탈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최악의 경우, 바른미래당은 의원 1명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손학규 대표의 최측근인 이찬열 의원은 이날 오전 배포한 탈당선언문에서 "이제 한계인 것 같다"며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을 떠나 동토의 광야로 떠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재·보궐선거에서 손 대표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국회에 입성했고 3선을 하는 동안 손 대표와 운명을 함께 해온 대표적인 '손학규계' 인사다.

이 의원의 탈당은 바른미래당 붕괴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손 대표에게 '오는 10일까지 퇴진하라'고 요구하며 당무를 거부하고 있다. 손 대표가 끝내 퇴진을 거부할 경우 집단 탈당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탈당 사태가 이어질 경우 바른미래당은 4·15 총선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80억원 가량을 손해 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유지할 경우, 국고 보조금 91억6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면 27억5000만원을 받게되며 '탈당 러시'가 현실화해 의석수가 1월 중순 이전에 5석 미만이 될 경우에는 11억원을 받는데 그친다.

현재 바른미래당 의원 19명 중 6명은 지역구 의원으로, 이들은 손 대표가 오는 10일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13명의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6명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할 안철수계로 분류된다.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당에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 안철수계인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하고 있는 '안철수 신당' 참여 비례대표 의원들을 즉각 제명해 달라"며 '제명'을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 등 호남 중진 등 당권파 의원들은 "대안신당, 평화당 등과의 제3지대 신당 창당 및 통합에 나서자"며 이번 주까지 손 대표를 설득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한국당 비례정당 '미래 한국당' 오늘 출범

한선교 대표 추대…현역의원 5명으로 확대 추진

자유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응해 만든 '미래한국당'이 오는 5일 공식 출범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미래한국당은 5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강령과 당헌 등을 채택한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한국당 한선교(4선)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 당 대표로 추대된다. 현재로선 현역 의원은 한 의원 1명뿐이다. 이어 다른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래한국당으로 이적해 오는 13일까지 현역을 5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연합뉴스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융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